

러시아 동부 지도에서의 일본해와 그 명칭의 문제점

Aleksey Nikolaevich Makhinov

(러시아 해양·생태문제 연구소 부소장)

1639년에 처음으로 태평양 해안에 도달했던 러시아의 탐험가들은 Amur 강 입구로부터 북미까지의 북서부 전체부분을 신속히 연구했다. 그들은 많은 지리적 발견을 했다. 그러나 남쪽에 인접한 바다 지역은 유럽인들에게 오랫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.

17-18세기 유럽의 지도에서 오호츠크해와 지금의 일본해(동해)는 종종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표현되었다(the B.Goman atlas, 1759; the V.Kazantsev map, 1742; 그 외).

그러나 1768년에 모스크바(러시아)에서 발행된 세계지도에서는 이미 태평양 북서부의 육지와 바다의 위치가 도식적이기 하지만 매우 정확하였다. 그 지도에서는 지금의 일본해가 한국해(Korean Sea)로 명명되어 있었다.

러시아에서 처음에는 한국해로 불려졌던 것이 서부 유럽의 바다 탐험대에 의한 태평양 쪽 (일본)에의 계속되는 연구로 인해 점점 일본해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.

지리적 명칭은 종종 변화된다. 이것에는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다.

지금의 일본해의 명칭에 관해서는, 관련된 모든 나라가 함께 모여 풀어야 할 논쟁적 요소가 있다. 동시에 그것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역사도 고려되어야 한다. 그것은 이원 명칭 (한국해-일본해)이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나온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.